

창간부터 월간양계와 양계역사를 함께...



▲ 신정재 회장

- 1940 경기도 가평 출생
- 1959 서울대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
- 1963 서울대학교 농과대학(63), 대학원(65) 졸업
- 1965-71 한국비타민헤드쿼터스(현 바이엘코리아) 근무
- 1971 과학사료(주)(현 에스에프(주)) 설립
- 1999 한국동물약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1999-2007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
- 2009 현 월간양계 편집위원
- 현 (주)에스에프 회장
- 현 동물약품협회 명예회장

1969년 11월에 태어난 월간양계가 이번호 발간으로 창간 4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고는 월간양계 창간당시 편집은 물론 광고수입 등 여러 부분에서 월간양계 발간에 기여했고, 현재까지 월간양계 편집위원직을 맡아가며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는 (주)에스에프 신정재 회장을 만나 월간양계 발간 의의 및 월간양계가 나아갈 방안을 들어보았다.

소신과 믿음

최근 신정재 회장은 30여일간 스페인의 산티에고 순례를 마치고 돌아왔다. 회사경영, 동창회보, 수필집 등 시간이 흐를수록 신 회장은 더욱 정열적이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 회장은 약품업계는 물론 양계업계분야에서 50여년간 종사해 오면서 어디를 가든지 소신 있게 바른 말을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종종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에게는 박수를 받아왔다.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월간양계가 정도를 견고 많은 양계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잡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신 회장은 창간당시부터 현재까지 월간양계 편집위원으로 활약하면서 양계역사를 함께 써 왔다. 1969년 현대양계와 월간양계 창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신 회장은 이후 과학사료(에스에프 전신)를 설립하였고, 한국동물약품조합장, 한국동물약품협회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에스에프(주) 회장, 한국동물약품협회 명예회장과 상임이사로 현역에서도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설립당시 신 회장이 정관을 만드는 등 기초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은 애정이 있었고 추후 협회장까지 맡으면서 동물약품 업계를 규합하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큰 업적을 남겼다.

월간양계 창간 의의

신정재 회장은 서울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바이엘코리아(주) 전신인 한국비타민헤드쿼터스(주)에 입사하였다. 평소 축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계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잡지발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9년 1월 한국비타민헤드쿼터스(주)의 김길원 사장의 도움을 받아 현대양계를 탄생시켰고, 그해 11월에는 한국가금협회 오봉국 회장의 뜻에 따라 월간양계를 탄생시키는데 큰 보탬을 주었다. 1969년도에 양계잡지의 중심적인 2종류의 잡지가 창간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 회장은 광고부장 역할을 맡아 당시 사료,약품, 부화장의 광고를 수주하여 잡지 발간에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이후 월간양계는 계도적인 잡지로, 현대양계는 대중적인 잡지로 색채를 띠면서 두 잡지가 경쟁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신 회장은 회고한다.

신 회장에 따르면 월간양계의 내용이 60~70년대는 사양 기술에 중점을 둔 계도적인 내용이 주가 되었고, 80~90년대부터는 유통 및 시설 등에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위생 등 소비자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어 양계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잡지로 거듭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월간양계의 역할

신 회장은 축산업계가 모래시계와 같다고 표현한다. 개방화 등으로 모든 축산물들이 위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닭고기와 계란은 타 품종에 비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소비자의 입맛을 어떻게 찾아주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생산을 한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정책 또한 과거에는 정부에서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입안되어 움직였지만 이제는 자율 경쟁체제하에서 농가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월간양계의 집필방향도 시대의 흐름을 잘 간파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신 회장은 월간양계가 앞으로 생산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살아있는 잡지가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또한 보는 잡지로, 읽는 잡지로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활동상황을 동정형식으로 많이 소개해 주는 것도 회원들을 규합하는 방법임을 언급하였다.

끝으로 월간양계가 40년 동안 걸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양계산업 발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양계인을 위한 잡지가 되길 바랐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kim300@hanmail.net)